

2025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—
에베소서
메시지 5
우주적인 건축물과 지방적인 건축물

성경: 엡 2:20-22

- I. 에베소서 2장 20 절부터 22 절까지는 건축물에 관한 두 방면의 계시 곧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이 있다.
- A. 교회는 우주적으로 유일하게 하나이며 특정 지방에 있는 교회도 지방적으로 하나이다.
 - B. 21 절에서는 교회의 우주적인 방면을 본다. “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.”
 - C. 22 절에는 지방적인 방면이 있다. “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.”
 - D. 성전은 우주적인 방면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거처는 지방적인 방면을 가리킨다.
 - 1. 모든 지방 교회를 함께 더해진 것은 우주적인 교회와 같다 — 행 16:5.
 - 2. 지방 교회들을 떠날 때 우주적인 교회는 없다.
 - 3. 지방 교회들을 건축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.
- II. 에베소서 2장 20 절은 “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.”라고 말한다.
- A.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. 우리는 기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— 고전 3:10-11.
 - B.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이다 — 엡 2:20.
 - 1. 교회는 이 기초 위에 건축된다.
 - 2.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0 절의 ‘기초’의 의미이다.
 - C. 20 절은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.
 - 1.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, 오직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— 행 4:10-12.
 - 2. 시편 118 편 22 절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에베소서 2장 20 절은 “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.”라고 말한다.
- III.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“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” — 엡 2:21.
- A. 여기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본다.
 - B. 이 건축물은 살아 있기 때문에(벧전 2:5)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다.
 - 1.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.
 - 2. 오늘 교회는 자라고 있다.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가 아닌 신성한 생명, 영적인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— 골 1:6, 10.
 - C. 에베소서 2장 21 절은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된다고 말한다. ‘연결되어’라는 말은 “건축물의 상태와 상황에 알맞게 되어”를 의미한다.
 - D. 21 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건축물 전체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다.
 - 1. ‘성전’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“성소, 성전의 내부”를 의미한다.”

- 2. 이것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소라는 건축물 전체가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E. '건축물 전체'라는 말은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킨다.
 - 1.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교회를 건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. "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,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."
 - 2.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 있는 건축물은 에베소서 2 장 21 절에 있는 건축물이다.

IV.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"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." — 엡 2:22.

- A. 22 절에 있는 지방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'여러분'이라는 말은 21 절에 있는 건축물은 우주적인 것이고, 22 절에 있는 건축물은 지방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.
- B. 이 절에서 바울은 지방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말한다.
- C. 이 절들에서 바울은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을 모두 다루었다 — 엡 2:21-22.
 - 1. 건축물 전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우주적인 방면을 가리킨다.
 - 2. 특정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이 함께 건축되고 있다는 것은 지방적인 방면이다.
- D. '성전'과 '거처'는 동일한 것의 두 방면을 가리킨다.
 - 1.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접촉하고, 하나님께 경배하며, 그분의 신탁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.
 - 2. 하나님의 거처는 안식의 장소이다. 하나님은 그분의 거처에서 안식하신다.
 - 3. 이 땅 위에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있다 해도 이 땅에 여전히 이 두 방면을 가진 하나의 건축물만 있는 것이다.
- E. 22 절은 우리가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다고 말한다.
 - 1. 여기서 '영'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믿는 이들의 영을 가리킨다.
 - 2. 하나님의 영은 거처가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이시다.
 - 3. 거처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다.
 - 4.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.
- F. 21 절은 성전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며 22 절은 하나님의 거처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.
 - 1.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이시며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.
 - 2.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.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이다.
 - 3.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다 — 고전 6:17.
 - 4. 우리는 우리의 영과 주님을 분리시킬 수 없다. 따라서 우리의 영이 바로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.
 - 5. 건축물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마음 안에 있지 않다.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문제이다.